

월요광장

여행, 여기서 행복하기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아래쫄쫄감을 걸었다. 이름도 이쁜 섬에서, 돌담에 그려진 물고기만큼 사랑스러운 작은 섬에서, 참으로 ‘다숨한’ 시간을 보냈다. 그저 걷고 그저 보고 그저 내 말기고 특별한 목표도 없이 시간을 쓰고, 그러다가 압도적인 풍경 앞에 넋을 잃으면 가버워지고 행복해지는 기분. 뭇가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다. 꿈결 속에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을 때, 이럴 땐 무엇인가가 우리를 동글게 에워싸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아름다운 것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까.

배를 타고 잠시 건너왔을 뿐인데 시간의 주름을 건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익숙한 곳을 떠나오면 새삼스럽게 인생이라는 여행의 길동무가 되어 준 이들이 고마워진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손잡고 걷는 이들이 많다. 그 어색한 다정함도 좋아 보인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등을 기대거

법조칼럼



이 정 훈
법률사무소 정진 변호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제도 아래 자신의 행동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교도소 수감생활 중인 피의자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도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방법 및 구속 기간,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와 접견법 등을 상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방법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피의자 관련

기 고



이 왕 무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다. 1996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중심 주소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100여 년 간 사용해 온 토지 중심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

주요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피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비치돼 있는 면회신청 용지를 작성해 제출한 뒤 순서에 따라 면회하면 된다. 유치장의 가능 면회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명절(설·추석 등) 기간 등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식사 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의 면회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교도소 접견 시간은 다소 짧은데, 면회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토요일엔 오전만 가능하다. 접견시간은 10분이다.

피의자를 접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마약, 총기, 도검, 폭발물, 흉기, 독극물 등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류·담배·화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도 제외

도로명주소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G20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제도다.

광주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1999~2001(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다. 도로명 부여, 도로의 가·종점 설정 및 주소보조 간선 도로망 체계 구성, 홍보 교육,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운영, 도로명주소 공공 및 민간 주소 전환, 국가기초구역 설정, 상세 주소, 국가기점번호 제도 업무 등이다.

정부에서도 2012~2030년 시행되는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과 2014년부터 전면적 사용된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적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인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담당 지적 전문 인력의 확대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시행 초기의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에 대응, 그

와 하늘하늘 춤추는 빠비꽃 모두 다 아름다웠던 순간도 있고, 백 년 전 피땀 어린 울음과 외침이 바람이 되어 왕왕 불어오는 것 같아 아픈 때도 있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과 폭력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반짝이는 은빛 이파리가 되고 한 소쿠리 비비새 울음이 되고 먹기와 집 마당을 뒤덮는 채송화 꽃밭이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풍경을 닮아 간다고 한다. 그러니 보다 나은 시간, 보다 아름다운 세계로 자꾸자꾸 나를 데려가야겠다. 아름다움은 삶의 해법을 던져 주진 않으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힘을 준다. 버티게 한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에 마음을 열 때,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도 알지만 혹독하다는 것 또한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묵묵히 인내할 줄 아는 것처럼.

‘살을 여행처럼, 여행을 살처럼’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인생이 여행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여행지에서는 누군가 내 집을 드는 것을 상상도 못 하지만 살 속에선 누군가 나 대신 내 집을 들어주길 원한다. 여행지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 살 속에선 많은 것에 애써 눈감으려 한다. 여행지에서선 내가 누구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으나 살 속에선 제발 나 좀 알아

된다. 휴대폰,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 통신기기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묻는 질문도 많은데 광주 소재 경찰서 중에서는 광주서 부경찰서(광주광산·나주·영광경찰서 통합 운영)와 광주북부경찰서(담양·곡성경찰서), 광주동부경찰서(광주남부·화순·전남경찰청 통합운영)에 광역 유치장이 있다. 전남 지역 경찰서에는 자체 유치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 경찰관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피의자가 유치돼 있는 해당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치장 수감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며, 구속 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형사소송법 제202조)돼 있다가 검찰청 구치소(대부분 교도소와 같이 있음)로 이송된다. 피의자가 일단 유치장에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경찰 조사를 받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때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파 달라고 부질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여행지에서는 외로울 때 해나 달이나 한 점 불빛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살 속에서는 외로울까봐 자주 타협을 한다. 여행지에서는 쉽 없이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살 속에서는 곧잘 지루한 답변만 늘어놓는다. 여행지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설레고 얼마나 자주 탄성을 지르던가? 그런데 살 속에서 나는 기쁨에도 슬픔에도 고통에도 얼마나 자주 무감각하던가?”(‘여행, 혹은 여행처럼’, 정혜윤 / 난다 중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돕는 풍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공평하게 에너지를 나눠준다. 사람으로 세상을 마주 서게 하고 세상을 이로운 쪽으로 작동시킨다. 그런 하늘, 그런 반짝임이라면 꼭 따서 가슴에 담아 와도 좋겠다. 지치고 상처받은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기적 같은 생기를 얻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모든 여행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여행)’ 위함이니깐.

휴가철 남도의 아름다운 섬마을에 갔을고, 거기 머무는 동안 당시의 노동자에 담겨 오면 좋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분류되는 ‘놀섬’ ‘미지의 섬’ ‘맛섬’ ‘열섬’ ‘가기 힘든 섬’에 보태어 당신만이 이름 지어 줄 ‘발견의 섬’으로서 말이다.

생각하고 진솔마져 대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다.

‘유치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쏟아 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실에서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장 구속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하며, 피의자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 또한 평소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하는 변호사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에만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 붙으려써 형사사건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영하여 명명)을 총호동 393-1 ~ 총호동 405-3 까지로 표기하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향토적 문화유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회나무로’나 ‘느티나무길’ 등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도로명은 도시 관리의 효율화, 재난 재해에 대응한 대국민 지원행능능률성 제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정체불명의 도로명인 것이 분명하다.

도로명주소가 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활동은 물론, 현재 지적직공무원만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에 발생되는 토지이용 및 건축 활동에 따른 새주소 부여와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에 한계성이 염려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적 전문가의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시·도 별로 거점화된 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지적과) 재학생 및 교수들 또한 도로명주소 정착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남광주시장 사고 계기 안전에 더욱 신경을

최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의 천장 철제구조물(아케이드) 일부가 내려앉은 사고가 있었다. 광주시와 동구는 정밀 조사 결과 철제 구조물을 지탱하는 일부 고정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밝혀내고, 보강공사를 거쳐 지난 14·15일 예정됐던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은 있었으나 빠른 진단과 보강조치로 행사를 차질 없이 치렀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남광주시장 내 천장의 철제구조물이 내려앉은 이번 사고로 구조물 밑에 있던 시장 상인과 손님 등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루 1만 명 이상 찾는 전통시장에서 주말·일요일의 지역축제 명소로 유명해진 ‘밤기차 야시장’까지 열리고 있는 마당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찔하기 짝이 없다.

광주시와 동구의 빠른 대처로 상인들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되고, 시민들

에게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하는 야시장 프로젝트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이날 예산 관련 행사로 서울 출장에 나섰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남광주시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시·동구의 재난 부서와 구조안전전문가들은 공동으로 긴급안전 점검을 벌여 보강재를 사용한 응급 보강시공으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야시장은 정상 개장했다. 주말과 일요일의 야시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별반 차이 없이 연일 8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갔다.

사람들이 모이고 각종 시설이 집중된 전통시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남광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해 상인은 물론 시민·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국 행위 다름없는 방산 비리 척결해야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가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심지어 기체 내부에 بات들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니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3~5월과 10~12월 두 차례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함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도 헬기의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

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압수·수색령 헬기로서 비행안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과 초음속 고동륜전기인 ‘T-50’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 온 국내 최대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검찰의 KAI 수사는 2015년 감사원 특별감사 보고서에 바탕하고 있다. 감사원은 KAI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KAI 비리 의혹 파일은 지금까지 문혀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KAI의 비리와 함께 당시 감사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윌선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방위산업 비리는 매국행위이자 이적행위 아닌가.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표변

지난해 4·13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임지자 한 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광주·전남 출신 고위관료로서 여당 성향 인사로 꼽히는 그로부터 조금은 낯선(?) 이야기를 들었다. 제스처까지 동원해 가져 그가 30여 분 동안 털어놓은 속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광주·전남의 정서가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진 것이긴 했지만, 어쩐지 귀에 거슬렸던 기억이 난다. 전화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벗어난 후에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서둘러 ‘불편한 대화’를 뇌리에서 떨쳐 내고 몇 개월 후 그가 금의(錦衣)를 입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기관의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경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만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우리 지역 인사가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일이니 잘 됐네”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강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지 겨우 두 달이 지났지만, 세상은 180도 변해 버렸다. ‘변방을 땀뿜던’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권부의 노른자위에 두루 포진한 것도 변화지만, 내부를 들춰다보면 친노·친문 인사들이 과거 진박 인사들을 대체한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 교체라는 쓰나미가 밀면서 ‘권력의 지형’이 바뀌어 버린 셈이다.

현재 정부기관이나 산하 공기업의 고위 임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 정권과 관련돼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터다. 중

국적의 주역(周域)에선 ‘군자는 표변(豹變)한다’고 했다. 군자가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다. 은뿔의 털갈이를 통해 아름답게 변화하는 표범과 같다는 이야기다.

요즘, 일부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부쩍 업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 수장(首長)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도 쏟아져 나온다. 수장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니 국민에게 다행이지만, 그저 자리를 지키기 위한 ‘표변’은 아니었으면 한다.

/홍행기자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